

인성교육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 서울대학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를 중심으로*

김 광 식**

— 목 차 —	
I. 들어가며	IV. 인성교육에 위험한가?
II. 왜 읽는가?	V. 사디즘인가?
III. 어떻게 읽는가?	VI.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인성교육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교육을 서울대학교의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아울러 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성교육 적합성 문제와 학술대회 발표를 할 때 논평자가 제기한 ‘배후의 사드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책을 읽게 하는 까닭은 무한경쟁으로 시기심과 절망감이나 증오심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자기를 긍정하고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다. 읽는 방법으로는 훈고학적 태도에서 벗어나 고전을 읽으며 내 삶이나 우리 삶의 문제나 태도를 되짚어보는 방법을 권장한다.

이 책 읽기는 인성교육에 적합하다. 이 책은 시기심 대신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치는데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을 기르는 게 인성교육이라면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

* 이 글은 2020년 6월 13일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인문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글이다. 논평해주신 김주환 선생님과 귀중한 도움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 교수, kwangsikkim@naver.com

인 자긍심을 기르는 교육도 인성교육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긍심이 넘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기 어렵다.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기꺼이 베풀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이 들기 쉽다.

한편 무한경쟁의 사회 현실 속에서 시기심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가지라는 가르침 배후에서 사드를 느낄 수도 있지만 사회가 거세된 순수 자아가 아니라 사회 속 자아로 자아 성찰 교육을 제대로 하면 사드를 덜 느끼고,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서울대학교 교양교육, 고전교육, 독서세미나, 니체 철학,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성교육, 사디즘

I. 들어가며

고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앞다투어 고전교육을 하고 있다.¹⁾ 서울대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글은 서울대 기초교육원이 개발하여 개설하고 있는 서울대 교양 고전교육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앞으로 <독서세미나>로 줄여 부르겠다)를 소개한다. 서울대 고전교육 일반이나 서울대 교양 고전교육 일반에 대한 소개가 아니다. 하지만 서울대 교양 고전교육의 한 모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서세미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개보다 주로 니체 강좌를 소개한다.²⁾ 한식을 소개

1) 우리나라 대학의 고전교육과 고전교육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8(5),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와 김연숙, 「교양교육과 문학-경희대 “고전읽기-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을 참조하라. 이하준은 2014년까지 한국대학 고전읽기교육의 현황과 현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 2014년 이후의 현황이 궁금한 이는 김연숙, 앞의 책을 참조하라. 김연숙은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는 문학 고전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 고전교육을 통한 교양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학의 고전교육과 고전교육 연구 현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

2) 독서세미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개는 박현희,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교육의 운영 특성과 효과-서울대(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양

할 때 한식을 모두 소개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표적인 음식 하나를 소개하는 방식도 있다. 뒤의 방식은 성급한 일반화의 잘못을 저지를 위험도 있지만 대표성만 잘 확보한다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다.

이 교과목은 2015년에 선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발했다.³⁾ 고전교육을 선한 인재 양성의 효과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다.⁴⁾ 선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성낙인 총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교양 교육은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독서세미나는 교양 선택 과목이고 계절 학기에만 개설한다. 정원은 25명이고 절대 평가 과목이다. 학기마다 5~11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마다 평균 11~32명이 신청한다. 강의평가는 평균 4.74로 매우 높다.⁵⁾ 지금까지 읽은 고전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춘향전』, 공자의 『논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밀의 『자유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간디의 『자서전』,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괴테의 『파우스트』,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의 정초』, 루소의 『고백론』, 맹자의 『맹자』,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광수의 『무정』,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플라톤의 『향연』, 프로트의 『사랑의 기

교육연구, 13(5),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를 참조하라. 프로그램 개발 목표와 운영 원리 및 방식,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 3) 고전교육의 목표는 다양하다. 정인모, 「고전 읽기와 교양교육」,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에 따르면 고전교육은 첫째 선인들의 지혜와 해안을 얻을 수 있고, 둘째 상상력과 정서적 심미적 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셋째 다양한 사고와 삶의 형태를 간접 체험하고 다른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넷째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다섯째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선한 인재 양성이란 고전교육 목표는 세 번째에 해당될 듯하다.
- 4) 물론 모든 고전교육이 곧 인성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성교육 목적에 적합한 고전교육이 있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 5) 독서세미나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서울대 기초교육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제1차년도 독서세미나 운영 및 평가 보고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6와 서울대 기초교육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제2차년도 독서세미나 운영 및 평가 보고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7을 참조하라.

술』, 기든스의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플라톤의 『국가』 등 22권이다.

고백하건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⁶⁾는 대상으로 선정 되지 못하다가 2017년에서야 선정되었다. 아마도 ‘선악의 저편’에 있어 인성교육에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거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아랑곳 하지 않고 수강 신청은 27명, 30명, 44명으로 꾸준히 늘어 지금은 독서세미나 강좌 가운데 니체 강좌가 단연 최고로 인기 있는 강좌의 하나가 되었다. ‘선악의 저편’에 있어 ‘위험’하다는 게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였을까? 그렇다면 ‘선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좌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 글은 먼저 독서세미나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왜 읽는지와 어떻게 읽는지를 소개한다. 그 다음에 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다시 말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가 인성교육에 위험한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에서 논평자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말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가 배후에 사드를 숨기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II. 왜 읽는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의 사상이 완숙한 경지에 이른 1883~85년에 완성한, 니체 철학의 핵심을 모두 담은 대표작이다. 근대 사상의 틀과 전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사상의 원천으로 삼는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중요한 문제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초인’, ‘나를 넘어섬’, ‘의지나

6) F. 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Nikol Verlag, 2011. 영어 번역본은 F.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Penguin Classic, 1978. 한글 번역본은 니체, F.,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을 기본으로 삼고 다른 번역본도 허용했다.

열정’, ‘시기와 긍정’, ‘웃음’이라는 열쇠 말을 중심으로 다루는 문제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부를 정도로 희망과 열정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감이나 자존감마저 잃었다는 것이다. 니체는 가장 나쁜 것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나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세상을 증오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자기에 대한 금지와 사랑이야말로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거나 시기심과 증오심에 가득 찬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이기적인 자기를 넘어서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체념하거나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나를 의지나 열정으로 끊임없이 넘어서 자기를 긍정하고 창조하는 초인이 되라는 가르침은 무한경쟁으로 시기심과 증오심에 빠진 젊은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II. 어떻게 읽는가?

1. 성찰하는 태도로 읽기

고전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옛날 책이다.⁷⁾ 다시 말해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다.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에 지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을 다시 읽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고전교육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책을 다시 읽어야 할 필요성을 깨

7) 고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인모, 앞의 책을 참조하라. 그는 고전을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어느 시대에서나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해석이 열려있는 작품”이라고 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현대의 책도 고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 책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직 여러 시대를 거쳐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말하는 책은 대부분 옛날 책이다. 서울대 고전 100선을 보라.

닫게 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전 읽기가 지금의 내 삶이나 우리 삶의 문제를 되짚어보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잘난 체할 자랑거리이거나 시간 낭비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에 얽매어 지은이의 ‘의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훈고학적’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권한다. 고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오히려 고전을 읽으며 내 삶이나 우리 삶의 문제나 태도를 되짚어보기를 권한다.⁸⁾

2. 열쇠 찾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 전공자가 읽어도 어려운데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은가? 아무리 복잡한 자물쇠도 알맞은 열쇠가 있으면 쉽게 열린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열어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놓았다. 이 열쇠로 니체 철학의 모든 공간을 살살이 열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핵심 공간은 열어볼 수 있다. 『도덕의 계보』가 그 열쇠다.⁹⁾ 그렇다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기 전에 『도덕의 계보』를 다 읽는가? 그럴 수는 없다.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필요한 핵심 부분만 간추려서 읽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읽는다.

8) 고전을 읽으며 내 삶과 우리 삶에 비추어 성찰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고전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김유미, 「명저읽기에서 질문생성을 위한 수업방법-그리스 비극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을 참조하라. 그는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리스 비극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고전교육에서 질문생성을 위한 수업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

9) F.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Reclam Philipp, 1998. 한글 번역본은 니체, F.,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를 기본으로 이용한다.

- [1]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은 원한 자체가 창조적이 되고 가치를 낳게 될 때 시작된다. 이 원한은 실제적인 반응, 행위에 의한 반응을 포기하고, 오로지 상상의 복수를 통해서만 스스로 해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원한이다.
- [2] 고귀한 모든 도덕이 자기 자신을 의기양양하게 긍정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노예 도덕은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가 아닌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다. 가치를 설정하는 시선을 이렇게 전도시키는 것-이렇게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리는 대신 반드시 밖을 향하게 하는 것-은 실로 원한에 속한다.
- [3] 노예 도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먼저 대립하는 어떤 세계와 외부 세계가 필요하다. 생리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일반적인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노예 도덕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반작용이다.
- [4] 고귀한 가치평가 방식에서 사정은 정반대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성장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감사하고 더 환호하는 긍정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대립물을 찾을 뿐이다. 그것의 부정적인 개념인 ‘저급한’, ‘천한’, ‘나쁨’은 철저히 생명과 열정에 젖어 있는 고귀한 가치평가 방식의 긍정적인 근본 개념인 ‘우리 고귀한 자, 우리 선한 자, 우리 아름다운 자, 우리 행복한 자!’에 비하면 늦게 태어난 창백한 대조 이미지일 뿐이다.
- [5] 고귀한 인간의 경우는 정반대다. 고귀한 인간은 ‘ 좋음’이라는 근본 개념을 먼저 자발적으로, 즉 자기 자신에게서 생각해내고, 거기에서 비로소 ‘나쁨’이라는 관념을 만들게 된다! 이 고귀한 기원을 지닌 ‘나쁨’과 끝없는 증오의 도가니에서 나온 저 ‘악함’을 비교해보자.
- [6] 전자가 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자, 일종의 보색이라면, 후자는 이에 반해 원형이며 시원이자 노예 도덕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본래의 행위다.
- [7] 겉으로 보기에 ‘ 좋음’이라는 개념에 대치된 ‘나쁨’과 ‘악함’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 얼마나 다른가? 그러나 ‘ 좋음’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원한 도덕이라는 의미에서 본래 누가 ‘악

한' 자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 [8] 이에 대해 엄격하게 대답한다면 다음과 같다. 바로 이와는 다른 도덕에서의 '좋은 사람', 바로 고귀한 자, 강한 자, 지배자가 본래 악한 사람인데, 이는 단지 변색되고 해석이 뒤바뀌고 원한의 독기 어린 눈으로 관찰되었을 뿐이다.
- [9] 여기에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좋은 사람'을 단지 적대자로만 알았던 사람은 또한 악한 적대자 외에는 알지 못했다. ... 서로 감시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 자신들의 외부로 향하여 자신들과 다른 낯선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고삐 풀린 맹수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들로 보인다.
- [10] [하지만] 그들은 모든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는 자들이다. ... 그들은 즐거움에 찬 괴물로서 맹수적 양심의 순진함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마치 학생들의 장난과 같으며, 그들은 시인들이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고 기릴 수 있는 것을 가졌다고 확신한다.
- [11] 이러한 모든 고귀한 종족의 바탕에 있는 맹수를, 곧 먹잇감과 승리를 갈구하며 방황하는 화려한 금발의 야수를 [악한 적대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숨겨진 바탕은 때때로 발산될 필요가 있다. 짐승은 다시 풀려나 황야로 돌아가야만 한다. 로마, 아라비아, 독일, 일본의 귀족, 호메로스의 영웅들, 스칸디나비아의 해적들은 이러한 욕망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모두 같다. 고귀한 종족이란 그들이 지나간 모든 자취에 '야만인'이라는 개념을 남겨놓은 자들이다.
- [12] '인간'이라는 맹수를 온순하고 개화된 동물, 곧 가축으로 길들이는 데 모든 문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어찌 되었든 오늘날 진리로 믿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고귀한 종족과 그들의 이상을 결국 모욕하고 제압하게 된 저 반응 본능과 원한 본능은 모두 의심할 여지없이 본래의 문화의 도구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퇴보다. 이러한 '문화의 도구'는 인류의 치욕이며, '문화' 일반에 대한 의심이며 반론인 것이다! 사람들이 이 고귀한 종족의 바탕에 있는 금발의 야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경계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

- [13] 결론을 내려 보자. ‘좋은과 나쁨’,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가치는 이 지상에서 수천 년간 지속되는 무서운 싸움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가치가 확실히 오랫동안 우세하게 지배했다고 해도, 지금까지도 승패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싸움이 계속되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을 읽기만 하면 학생들이 공간을 열어볼 열쇠를 찾을 수 있는가? 백작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모둠끼리 토론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한다. 모둠 토론이 끝나면 모둠마다 찾은 열쇠를 전체 토론으로 비교해본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대체로 공간을 열만한 모양을 갖춘다. 물론 아직 서툴고 거칠다.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서툴고 거친 모서리를 다듬어준다. 물론 모든 모서리를 다 매끈하게 다듬어주지는 않는다. 앞으로 책을 읽으며 스스로 다듬을 부분을 남겨둔다.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부분이 앞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책도 알려준다. 고병권의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박찬국의 『초인수업』과 김광식의 『김광석과 철학하기』를 일러준다. 고병권의 책¹⁰⁾ 앞부분에 있는 니체의 삶과 철학, 니체 이후의 니체 등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일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신, 창조, 사랑, 우정, 신체, 자아, 전쟁, 이상, 여성, 웃음, 영원회귀, 변신, 초인 등의 열쇠 말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부분은 난수표 같이 보이는 책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솜씨 있는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한다. 마지막에 덧붙인 고도, 계절, 하루 중 시간, 동물 등에 대한 가이드는 책을 입체적으로 읽도록 도와준다.

박찬국의 책¹¹⁾은 니체 철학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와 관련된 10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다. 고통, 무의미, 절망, 갈등, 신앙,

10) 고병권,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린비, 2003.

11) 박찬국, 『초인수업』, 21세기북스, 2014.

신념, 예술, 죽음, 개성, 자기 넘어섬과 같은 열쇠 말로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것들에 대한 니체의 답을 풀어낸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정글에 안내자 없이 홀로 들어섰다가는 길을 잃기 쉽다. 그 책을 『초인수업』을 안내자 삼아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물음을 중심으로 읽어간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김광식의 책¹²⁾은 철학사에서 중요한 철학들을 김광식의 노래를 통해 소개한다. 니체 철학을 다루는 부분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니체 철학의 핵심을 『도덕계보학』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아울러 김광식의 노래 〈슬픈 노래〉를 통해 니체 철학을 일상의 문제에 적용하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전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다보는 〈나의 삶〉이라는 에세이를 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소감 나누기

열쇠를 손에 넣으면 이제 공간을 열어봐야 한다. 정말 열리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업마다 학생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책을 읽어온다. 중요문장에 밑줄을 긋고 논평 메모를 하며 미리 읽어온다. 어떻게 읽었는지 A4 반쪽 정도로 짧은 소감문¹³⁾을 써와서 이야기를 나눈다. 인상깊은 부분을 인용하고, 그 부분을 자신의 열쇠로 어떻게 열었는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이나 우리의 삶에 비추어보고 왜 인상 깊었는지, 어떻게 인상 깊었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내 삶이나 우리의 삶

12) 김광식, 『김광식과 철학하기』, 김영사, 2016.

13) 소감문은 완독을 돕는 도우미의 역할도 한다. 다른 독서세미나 강좌들은 완독을 강제하기 위해 쪽지 시험을 보기도 한다. 쪽지 시험은 완독을 강제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고전 읽기를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보다 정보를 얻는 데 힘을 쏟게 하는 단점이 있다.

에 비추어보기보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면 교수자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기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질문이 거듭되면서 소감문은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졌다.

4. 발제하기

소감문 나누기가 끝나면 지정된 모둠(4~5명)이 20분 동안 PPT로 발제한 핵심 내용을 함께 읽으며 해설하고 나와 우리 삶에 비추어 비판하고 평가한다. 텍스트의 맥락에 따른 읽기가 씨줄이라면, 삶의 맥락에 따른 읽기가 날줄이다. 이 두 맥락에 고루 따라야지 어느 한쪽에 쏠릴 때 고전 읽기는 실패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둠 발표는 개인 소감문 발표의 집단 버전인 셈이다. 발표 준비뿐만 아니라 발표도 한두 명이 도맡아서 하기보다 모두가 참여하길 권장한다. 대학 생활 내내 발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발표 올령증은 발표에 대한 큰 부담에서 비롯된다. 부담을 여럿이 나누어 진다면 발표 올령증도 줄어들 것이다.

5. 짝 토론하기

발표를 맡은 모듬은 강의계획서에 제안된 주제를 참조하여 토론주제를 제안한다. 강의계획서에서 제안한 토론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토론주제

탐구주제1 : 의무와 자유	• 낙타, 사자, 어린이 가운데 어느 삶을 살 것인가? • 해야 할 일과 원하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을 할 것인가?
-------------------	--

탐구주제2 : 연민과 사랑	• 연민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가? • 이웃사랑에 대한 대가는 이웃 아닌 이들이 치르는가?
탐구주제3 : 정의와 선	• 정의의 본질은 양값음인가? • 최고의 선은 자기를 넘어서는 선인가?
탐구주제4 : 구원과 창조	• 구원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 창조하는 것인가?
탐구주제5 : 덕과 행복	•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덕이고 행복인가? •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게 덕이고 행복인가?
탐구주제6 : 선과 악	• 창조하는 자가 아니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모르는가? • 초인은 선과 악의 저편에 있는가?
탐구주제7 : 지식과 행복	• 모든 것은 한결같고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가? • 세상은 무의미하고 지식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가?
탐구주제8 : 웃음과 행복	•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과정이요 몰락인가? • 큰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인가? • 웃음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학생들은 강의계획서의 주제들을 참조는 하지만 자신들 나름의 다양한 주제들을 제안한다. 토론이 텍스트와 동떨어져 이루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관련 텍스트를 제시하게 한다. 또한 토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토론주제를 제안할 때 구체적인 사례도 두세 가지 제시하길 권장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제안한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정신이 사자로 변한다. 정신은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의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 정신이 더 이상 주인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는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니체, 「세 변화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토론주제 :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례1 : 히틀러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고자 한다.’에 따라 산 인물 같이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히틀러의 삶은 옳지 않아 보인다. 니체 철학에 따르면 히틀러의 삶이 옳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례2 : 예수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고자 한다.’에 따라 산 인물 같이 보인다. 자신의 ‘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가난한 이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며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다 결국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의 삶은 옳아 보인다. 니체 철학에 따르면 예수의 삶이 옳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토론주제가 제안되면 두 명씩 짝을 지어 토론을 한다. 4~5명의 모둠끼리 토론을 하지 않고 짝 토론을 하면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토론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보다 더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친구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이야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당한 이야기,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란 이야기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마음 깊숙이 숨겨놓았던 이야기들을 한 경우가 많다. 짝은 매번 돌아가며 바꾼다.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많이 이들과 짝을 이루어 토론을 하게 된다. 마지막 수업에서 소감을 말할 때 인상 깊었던 짝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다. 짝 토론이 끝나면 짝마다 토론한 내용을 전체 수강생에게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고 교수자는 총평으로 마무리한다.

6. 영화 보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2부가 끝날 때쯤 니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토리노의 말>¹⁴⁾을 보고 그 속에 담긴 니체 철학을 살펴보고 반복적 삶과 초월에 대해 성찰해본다. 영화도 텍

스트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 나서 어떻게 보았는지 A4 반쪽 정도로 짧은 소감문을 써와서 이야기를 나눈다. 인상 깊은 대사나 장면을 인용하고, 그 부분을 자신의 열쇠로 어떻게 열었는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이나 우리의 삶에 비추어보고 왜 인상 깊었는지, 어떻게 인상 깊었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토리노의 말〉은 가난한 시골 집안의 아버지와 딸이 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 내내 보여준다. 일어나서 옷 입고 물을 길어와 감자를 찌고 찢 감자를 손으로 으깨어 먹고 먹이를 거부하는 말에게 먹이를 주고 의자에 앉아서 창문으로 거세게 불어대는 흙바람을 보고 있고 저녁이 되면 옷을 벗고 호롱불을 끄고 잔다. 그들의 삶은 과연 초인의 삶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그들 자신의 무엇을 넘어선단 말인가? 반복된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군가가 죽기 전에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을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살 것인가?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영원회귀와 늘 새롭게 넘어서는 초인의 삶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짝을 지어 이야기를 나눈다. 짝 토론이 끝나면 짝마다 토론한 내용을 전체 수강생에게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고 교수자는 총평으로 마무리한다.

7. 에세이 쓰기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난 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시기와 긍정이라는 열쇠 말로, 나는 누구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면 좋을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내다보는

14) *A Torino Lo(The Turin Horse)*, B. Tarr, 2011. 한국에서는 〈토리노의 말〉이란 제목으로 상영하였다. 〈토리노의 말〉, 벨라 타르,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012. 참조.

A4 2~5쪽 분량의 에세이를 써서 발표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 에세이를 eTL에 올리고, 지정된 학생들이 비평을 댓글로 달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한다. 토론을 참조하여 수업 후 수정하여 eTL에 제출한다. 이 에세이는 수업의 마무리이자 결실이며 꽃이다.

첫 시간에 이 수업은 니체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솔하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고해성사라고 말한다. 더 괜찮은 자기로 성장하고 그림으로써 행복하려면 진솔한 자기 고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겉돌다 누군가 진솔한 이야기를 내놓으면 실제로 제출한 에세이를 넘어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술술 내놓는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울음도 절로 나온다. 누구 하나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울음이 북받쳐 말을 잇기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준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자라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엉엉 소리 내어 운다. 듣는 이들도 같이 운다. 다 울고 나서 다 같이 행복하게 웃는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을 사랑하는 이유다. 영혼을 치유하고 싶으면 이 수업을 들으라는 친구의 말에 끌려 수업을 듣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다. 그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의 일부다.

진정, 나는 연민의 정이란 것을 배품으로써 복을 느끼는, 저 자비롭다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심이 없다.

- 니체, 「연민의정이 깊은 자들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은 자기연민의 연속이었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머리가 시키는 일과 가슴이 시키는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관해 얘기를 나눴었는데, 나의 경우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 그 갈등의 골이 더없이 깊다. 머리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계속 되뇌이지만, 진심에는 경멸만이 있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장 심각하게 한다는 ‘그’ 시기, 질풍노도의 중학생 시절에 나도 자살이라는 것을 고민해본 적이 있었다. 아예

내 삶이 통째로 뒤바뀌지 않는 한 나는 내가 경멸하는 나로부터 벗어나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린 생각에서 벗어나 아
 직까지 살아온 것도 그다지 나를 긍정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차
 라투스트라가 부정하는 타인에 대한 연민, 그것이 되려 나를 붙잡았다.
 ‘내가 죽으면 나 하나에 노후 준비 올인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지?’라
 는 생각이 나를 살게 했다. 내 삶의 근거는 내가 아닌 외부에 있었다.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기연민에 허우적대는 내 뺨을
 때려 정신이 들게 했다. 네가 뭐가 불쌍하냐며, 잘난 척하지 말고 똑바
 로 살라며 잔소리했다. 혼자 갇힌 회의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연민하는
 꼴이 마치 자기가 크나큰 깨우침을 얻은 현인인 양 착각하는 것 같다며
 조롱했다. 또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에게 주는 어떤
 사랑도 의존도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네가 진실한 관계에 목말라하는
 것은 결국 네가 초래한 일이라고 호통쳤다. 차라투스트라의 자비 없는
 충격요법이 나에게서는 꽤나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나는 생각 없이 걸어가던 이 내리막길을 도움닫기 삼아 나를
 극복하고자 한다. 비록 중력의 정령과 오랜 자기연민의 늪이 계속해서
 나를 끌어내릴지라도, 끝내 나 이 아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계
 속 뛰어보고자 한다. 그 과정과 의지 자체가 결국 나의 극복이니.

우선 그 어떤 나라도 사랑해야겠다. 나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사람들
 을 동경해왔고 나 또한 그들을 닮아가길 바라왔었다. 그러기 위해서 나
 는 나를 변화시키고, ‘열등한 나를 극복’하려 해왔다. 이는 차라투스트라
 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극복이 아니었다. 자기를 부정하고, 경멸스러
 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선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자기
 를 연민하지 않는 이는 스스로에게 또한 야전침상과 같은 베틀이 되어 발
 걸음을 내딛게 한다. 이가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르지 못하더
 라도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고 과정을 인내하고자 하는 용기 자체를 사랑
 할 것이다.

- 학생 글

덧붙이자면 수업 내내 썼던 모두의 글들을 모아 전자책을 만든다. 니체
 의 책을 읽으며 니체를 넘어 우리만의 책을 쓴다고 할까. 제목은 “나는 이

렇게 말했다”다. 모두 2부로 이루어지는데, 1부 “나는 이렇게 읽었다”는 소감문들을 모으고 2부 “나는 이렇게 말했다”는 에세이를 모은다. 학기가 끝날 때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선물로 준다.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나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진실로, 나는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내가 잃은 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나서 지금과는 다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 니체, 「베푸는 덕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IV. 인성교육에 위험할까?

앞에서 고해성사 했듯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는 처음에 독서세미나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아마도 선악의 저편에 있어 위험하다는 게 큰 이유였을 게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는 정말 인성교육에 위험할까? 처음부터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자 한다’를 강조하니 ‘해야 한다’는 순한 길들여진 마음가짐을 지니는 ‘인성’을 기르고자 하는 인성교육에는 위험하긴 하다. 하지만 순하고 길들여진 사람의 성품이 우리가 길러야 하는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일까?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의 성품과 베풀고 싶어 베푸는 사람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더 바람직할까? 도덕의 노예가 된 사람의 성품과 도덕의 주인이 된 사람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더 바람직할까?

시기심에서 비롯된 노예의 도덕은 도덕의 노예가 되게 만들기 십상이고, 자긍심에서 비롯된 주인의 도덕은 도덕의 주인이 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는 수학 교육이 인기다. 공식에 대해 생각하여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외워 문제를 풀게 하는 생각 없는 수학 교육과 달리 생각하는 수학 교육은 스스로 공식에 대해 생각하여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문제를 풀게 한다. 심지어 공식을 만들기까지도 한다. 공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공식의

주인이 되는 수학 교육이다. 도덕 교육도 마찬가지다. 도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덕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시기심 대신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인성교육이 아닌가? 악한 마음 대신 선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그런 교육은 인성교육이라 할 수 없다. 자긍심은 선한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자긍심이 악한 마음도 아니다. 자긍심은 선악의 저편에 있다. 하지만 자긍심은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이다.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을 기르는 게 인성교육이라면 자긍심을 기르는 교육도 인성교육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긍심이 모자라 생기는 시기심은 남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낳기 쉽다. 자긍심이 넘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기 어렵다. 오히려 자긍심이 넘치는 사람은 기꺼이 베풀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이 들기 쉽다. 심지어 자긍심이 넘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못 가진 이들조차 기꺼이 베풀고 싶어 한다. 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 이 책을 읽고 고시를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바꾼 학생도 있다. 시기심 때문에 고시를 준비했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자긍심을 되찾는 순간 자신이 하고 싶은,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일은 베푸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다.

V. 사디즘일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는 기본적으로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자긍심을 되찾는 자아를 성찰하는 수업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 이유를 말할 때 밝혔듯이, 요즘 젊은이들은 삼포세대라 부를 정도로 희망과 열정을 잃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마저 잃었다. 이 수업

은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거나 시기심과 증오심에 가득 찬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자긍심을 되찾아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한다. 하지만 논평자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배후에 사드가 있지 않을까 아래와 같이 걱정을 한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기를 긍정하는 이른바 실존의 미학 내지 윤리의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성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당위의 힘보다 자기 긍정의 실존적 삶 대신 생존을 추구하며 살라는 외적 명령의 압박이 훨씬 크다는 데 있다. 오늘날의 청년들의 정서에서는 니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가는 자칫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먼저 엄습한다. 열정적 사랑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다고 여기며(과도한 감정과 시간 투자, 낭비) 사랑마저도 리스크 관리하듯이 차갑게 하고, 심지어 사랑보다 이른바 ‘썸’이 더 편하다고 하는 청년들 아니던가? 말하자면 니체가 말하는 자기 긍정과 실존의 미학 내지 윤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자칫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당위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리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고 그들이 삶의 태도를 반성해보고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지만, 수용자들의 마음에서는 그 가르침이 고루한 인문주의적 교훈의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않는데 바깥에서 당위의 제시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니 그러한 교육은 자칫 강제적인 폭력처럼 체험될 수도 있다. 우리 교육자들은 ‘칸트의 배후가 바로 사드’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¹⁵⁾

그는 더 나아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가 사디즘으로 체험되지 않는 방법도 일러준다. 시기심으로 무한경쟁에 휩싸인 자아를 성찰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무한경쟁에 휩싸이게 만드는 사회도 성찰하게 하

15) 김주환, 「“서울대 교양 고전교육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를 중심으로”의 토론문」,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는 거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좋은 니체의 가르침이 멀게만 느껴지는 지, 니체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우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신의 삶이 조직되는 보다 넓은 힘의 축들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칸트의 배후에 사드가 있을 수 있듯이 니체의 배후에도 사드가 도사릴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시기심으로 무한경쟁에 휩싸인 자아를 성찰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무한경쟁에 휩싸이게 만드는 사회도 성찰하게 하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가 사디즘으로 체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배후에서 사드를 덜 느낄 수도 있으며, 시기심으로 무한경쟁에 휩싸이게 만드는 사회도 성찰할 수 있다. 자아 성찰과 사회 성찰은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자아가 사회 속 존재인 탓이다. 사회가 거세된 물들지 않은 순수한 자아란 없다. 자아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사회 밖으로 꺼낸 순수 자아가 아니라 사회 속 존재로서 성찰해야 한다. 또한 자아 없는 사회도 있을 수 없다. 사회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자아가 거세된 순수한 사회 자체가 아니라 자아로 이루어진 사회를 성찰해야 한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은 ‘배후의 사드’를 느끼는 자아를 메타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배후의 사드’로부터 점차 벗어나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더 이상 사드적 폭력이 아닌 자기 구원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수업이 끝날 때 쯤이면 인생의 바이블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꽤 많다. 또한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시기심으로 물든 자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 대부분 자아를 그렇게 시기심으로 물들게 만든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할 줄 안다. 사회가 거세된 순수 자아가 아니라 사회 속 자아로 자아 성찰 교육을 제대로 하면 사드를 덜 느끼고,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성찰 교육을 제대로 하면 자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될 것이다.

VI. 나가며

이 글은 서울대 교양 고전교육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를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울러 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성교육 적합성 문제와 학술대회 발표를 할 때 논평자가 제기한 ‘배후의 사드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왜 읽는가? 무한경쟁으로 시기심과 절망감이나 증오심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시기심에 사로잡혀 체념하거나 미워하는 나를 의지나 열정으로 끊임 없이 넘어서 자기를 긍정하고 창조하는 초인이 되라는 가르침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다.

그럼 어떻게 읽는가? 문구 하나하나에 얽매며 지은이의 ‘의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훈고학적’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권한다. 고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고전을 읽으며 내 삶이나 우리 삶의 문제나 태도를 되짚어보게 한다.

인성교육에 적합한가? 이 책은 시기심 대신 자긍심을 갖도록 가르친다. 자긍심은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이다. 바람직한 사람의 성품을 기르는 게 인성교육이라면 자긍심을 기르는 교육도 인성교육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긍심이 넘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짓을 빼앗아 차지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기 어렵다. 오히려 기꺼이 베풀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이 들기 쉽다.

배후의 사드는? 사드를 느끼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성찰 교육은? 배후에 사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거세된 순수 자아가 아니라 사회 속 자아로 자아 성찰 교육을 제대로 하면 사드를 덜 느끼고,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될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는 성공했는가? 성공 여부는 선한 인재 양성이란 목표에 비추어서 가늠할 수 있다. 학생들이 쓴 소감문 나누기와 에세이 발표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선한 인재는 모르겠으나 선할 수

있는 인제는 기른 것 같다. 평평 눈물을 쏟는 진솔한 고해성사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소박하지만 진지한 다짐이 그 증거다.

한계는 없는가? 무엇보다 계절 학기와 비대면 수업에서 오는 아쉬움이 크다. 계절학기는 주어진 시간이 짧아 몰아치듯 진행된다. 500쪽이 넘는 ‘철학’ 책을 5주 만에 다 읽고 아홉 차례 소감문을 쓰고 에세이를 쓰는 일은 벅차다. 정규 학기에 읽는다면 그러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수업의 주된 일은 고해성사다. 고해성사를 해본 이는 잘 알겠지만 얼굴을 직접 보고 하는 고해성사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는 고해성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짝 토론에서 주로 진솔한 진국의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데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는 쉽지 않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교육이 어렵겠지만 고전교육은 더욱 어렵다. 무엇보다 책 읽기를 싫어하며, 무한경쟁의 사회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이 그 뒤에서 사드를 느낄지라도 고전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럼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라! 이것이 답일 듯하다. 책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마무리한다.

그대들 모두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용기를 잃지 말라, 그제 무슨 문제라고!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도 가능한가! 마땅한 방식으로 그대 자신들을 비웃어주는 법을 익히도록 하라!

- 니체, 「보다 지체 높은 인간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참고문헌

- 고병권,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린비, 2003.
- 김광식, 『김광석과 철학하기』, 김영사, 2016.
- 김연숙, 「교양교육과 문학-경희대 “고전읽기-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 김유미, 「명저읽기에서 질문생성을 위한 수업방법-그리스 비극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 김주환, 「“서울대 교양 고전교육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를 중심으로”의 토론문」,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 니체, F.,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 니체, F.,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인문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 박찬국, 『초인수업』, 21세기북스, 2014.
- 박현희,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읽기교육의 운영 특성과 효과-서울대(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3(5),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 서울대 기초교육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제1차년도 독서세미나 운영 및 평가 보고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6.
- 서울대 기초교육원, 『〈독서세미나-고전에 길을 묻다〉 제2차년도 독서세미나 운영 및 평가 보고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7.

-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8(5),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정인모, 「고전 읽기와 교양교육」,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 벨라 타르, 〈토리노의 말〉,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012.
- Nietzsche, F., *Also sprach Zarathustra*, Nikol Verlag, 2011.
- Nietzsche, F., *Thus spoke Zarathustra*, Penguin Classic, 1978.
- Nietzsche, F., *Zur Genealogie der Moral*, Reclam Philipp, 1998.
- Tarr, B., *A Torino Lo(The Turin Horse)*, 2011.

Abstract

Reading of *Thus spoke Zarathustra* as a Moral Character Education

- Focus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s "Reading Seminar - Ask the classics for directions"

Kim, Kwangsik(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ntroduces Seoul National University's classics education of liberal arts "Reading Seminar - Asking the Way to Classics", focusing on the reading of Nietzsche's *Thus spoke Zarathustra*. I talked about why and how to read it. In addition, I talked about the issue of its suitability to moral character education, which was controversial during the book selection process, and the issue of 'sade behind it' raised by the commentator at the conference.

I let students read this book because I want to give young people who have fallen into jealousy, despair, or hatred by the infinite competition an opportunity to affirm themselves and to reflect on their lives. I let them read it not in an exegetical manner, but in a reflective manner. I encourage them to reflect on the problems and attitudes of their lives while reading.

This book teaches us to have pride instead of envy. If cultivating the character of desirable people is moral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 that cultivates the pride, which is the character of desirable people, can also be moral character education. Furthermore,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who is full of self-esteem and does not have jealousy to have an evil heart to take someone else's possession. Rather, it is easy to have

a good heart that is willing to give others his possession.

Of course we may be worried that students will find sadism behind the teaching of overcoming envy and have pride in the social reality of infinite competition, and therefore, we may think that it may be necessary to let them reflect on the society that makes them find sadism behind it. Of course they may see sadism behind it. But if we teach them self-reflection education not with a pure self-without-society but with a self-in-society, they will see less sadism and reflect critically on society.

[Key Words] Lib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lassics Education, Reading Seminar, Nietzsche Philosophy, *Thus spoke Zarthustra*, Moral character Education, Sadism

접 수 일 : 2020년 08월 20일

심사완료 : 2020년 09월 14일

게재결정 : 2020년 09월 14일